2026년 제3회
인천 서곶학 세미나

서해구의 문화자원과 콘텐츠의 가능성

아카데미

지역자원으로 읽는 서해구

2026년 제3회 인천 서곶학 세미나 강의요지문

지역자원으로 읽는 서해구

- 서해구의 문화자원과 지역문화연구의 과제 -

김창수 인문도시연구소장
전 인천연구원 부원장

제1장
행정체제 개편과 서해구의 문화비전 5

제2장
서해구 문화자원의 현황과 특성 9

제3장
서곶학의 갱신과 연구 활용 과제 15

제4장
문화자원의 현재적 재해석 시론 21

제1장

행정체제 개편과 서해구의 문화비전

제1장 행정체제 개편과 서해구의 문화비전

1. 서곶과 검단의 행정구역 변천

오늘의 서해구 중심 지역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모월곶면과 석곶면에 속했다. 1895년 부평도호부는 인천부 관할 부평군으로 바뀌었고, 이듬해 경기도 부평군이 되었다. 1914년 두 면이 통합되어 부천군 서곶면이 되었으며,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되었다. 1968년 구제 실시로 북구에 속했고, 1988년 북구에서 분리되어 서구가 설치되었다.

검단 지역은 조선시대 김포의 검단면·노장면·마산면에 속했다. 1914년 세 면이 통합되어 김포군 검단면이 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었다. 서곶과 검단은 그전까지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었다. 두 지역은 약 31년간 서구에 함께 속했다가 2026년 7월 1일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다.

시기	서곶 지역	검단 지역
조선시대	부평도호부 모월곶면·석곶면	김포 지역 검단면·노장면·마산면
1895년	인천부[1] 관할 부평군	인천부 관할 김포군
1896년	경기도 부평군	경기도 김포군
1914년	두 면 통합 → 부천군 서곶면	세 면 통합 → 김포군 검단면
1940년	인천부 편입	김포군 검단면
1949년	인천시	김포군 검단면
1968년	인천시 북구	김포군 검단면
1981년	인천직할시 북구	김포군 검단면
1988년	인천직할시 서구	김포군 검단면
1995년	인천광역시 서구	3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편입
2026년 7월 1일	아라뱃길 이남 중심의 서해구	아라뱃길 이북 중심의 검단구

1. 1895년의 인천부는 여러 군을 관할한 광역 행정구역이며, 1940년의 인천부는 오늘날 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2. 새 행정경계와 역사적 생활권

옛 서곶과 검단의 경계는 부평과 김포의 행정구역 경계였다. 새 경계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옛 서곶면에 속했던 백석동과 시천동의 아라뱃길 이북 지역도 검단구에 포함되었다. 이번 분구는 옛 경계를 그대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서곶 지역을 검단구에 포함해 새 관할을 정한 것이다.

행정구역은 문화기관의 사업 대상과 운영 책임을 정하는 기준이다. 역사적 생활권은 마을의 형성과 교류, 주민의 이동을 연구하는 범위이다. 두 범위를 구분해야 새 행정구역에 맞춰 사업을 정비하면서도 지역의 역사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서곶학의 연구 범위 역시 문화원의 현재 관할과 역사적 서곶의 범위를 함께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3. 서해구 명칭의 문화적 의미와 비전

서해구라는 새 명칭은 서곶의 역사와 해양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문화비전을 설정하는 계기이다. 바다와 섬, 갯벌과 매립지, 항만과 산업지역은 이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보여준다. 문화비전은 서해의 역사와 생태, 산업과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해양문화도시로 설정할 수 있다.

해양성은 서해구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다. 노을과 해안 경관에 더해 사라진 섬과 나루, 어업과 해운, 매립과 항만 조성, 산업화와 주민의 정착 경험까지 함께 담아야 한다. 오래된 마을과 산업지역, 신도시 주민은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조사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새로운 구명칭에 부합하는 문화비전을 실현하려면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주민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자원의 보존과 교육·예술적 활용, 생활권별 문화 접근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출발점이다.

제2장

서해구 문화자원의 현황과 특성

제2장 서해구 문화자원의 현황과 특성

1. 분야별 문화자원 현황

서해구의 문화자원은 서곶의 역사유산, 해안과 마을의 자연환경,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생활문화, 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구성된다. 오래된 마을과 산업지역, 청라의 새로운 주거지가 함께 있어 자원의 형성 시기와 성격이 다양하다. 기존『인천서구문화자원가이드북』과 문화원의 조사·출판물을 바탕으로 현황을 정리하되 검단구로 분리된 지역의 자원은 구분해야 한다. 시설의 운영 현황과 유산의 보존 상태는 현장조사를 통해 갱신할 사항이다.

1) 역사유산과 관방유적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는 서해구의 대표적인 역사유산이다. 가마터와 출토 유물은 고려시대 도자 생산과 생활을 보여준다. 녹청자박물관은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생산기술과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공간이다.

공촌동의 심즙 신도비, 경서동의 류사눌 묘, 석남동의 조서강 묘 등은 지역 인물과 가문의 역사를 보여준다. 묘역과 비문에는 인물의 생애, 관직, 가계와 묘역 조성의 경위가 남아 있다. 문화원의 분묘유적·금석문 자료는 현장에 남은 석물과 문헌 기록을 대조하는 기초자료이다.

축곶봉수대지, 연희진지, 연희포대지 등은 서곶 해안의 군사적 역할을 보여주는 관방유적이다. 봉수와 해안 방어시설은 당시의 지형과 교통로를 함께 살펴야 의미가 드러난다. 매립과 도시화로 해안선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옛 지도와 현재 지형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들 유적은 서곶이 내륙과 바다를 연결했던 지역임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2) 역사 인물과 문학·예술 자원

검암동의 허암 정희량 유허지는 인물의 생애와 문학, 은거와 실종에 관한 이야기가 결합된 장소이다. 시문과 역사 기록, 구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유허지와 주변 지형, 마을의 기억은 인물의 지역 생활을 이해하는 자료이다.

검여 유희강은 서해구의 중요한 예술 자원이다. 작품과 서예 활동, 고향과의 관계, 뇌출혈 이후 왼손으로 서법을 완성한 과정은 예술사와 생애사 양쪽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작품과 문헌, 편지와 사진, 증언과 교육 활동, 교류 관계를 조사하면 생애와 작품세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역 인물 연구는 주민의 생애로 확장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과 생활사 구술자료에는 지역을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 있다. 주민의 생업과 이동, 정착 경험은 지역사회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자료이다.

3) 설화·지명·민속 자원

서곶에는 천마와 아기장수와 같이 계양산, 원적산, 용두산 등 장소와 결합된 설화가 전한다. 지명고사는 산과 고개, 나루와 마을이 어떻게 불리고 이해되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민의 두려움과 욕망, 권력에 대한 인식, 장소에 부여한 의미를 살피는 자료이다.

용두산과 구 대감 설화에는 구선복과 구성필의 묘, 명당에 대한 믿음, 학대받던 종의 복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다. 역사 기록과 전설을 대조하면 실제 인물이 지역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과 전승의 내용을 구분하면서 이야기의 문화적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서곶들노래와 마을 당제는 농경생활과 공동체 문화를 보여준다. 들노래에는 노동의 방식과 협업의 경험이, 당제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와 주민 관계가 담겨 있다. 가사와 음악, 의례 절차뿐 아니라 전승자와 참여 주민, 전승 환경의 변화도 조사 대상이다.

4) 자연·생태와 마을 경관

원적산과 주변 산지, 공촌천과 심곡천, 세어도와 해안은 서해구의 자연·생태자원이다. 산과 하천은 마을의 입지와 생활권을 형성했고 해안과 섬은 어업·운송·교류의 기반이었다. 자연환경의 변화는 지역의 역사와 생활 변화에 직접 연결된다.

심곡동 은행나무, 신현동 회화나무, 가좌동 음나무 등 오래된 나무에는 마을의 역사와 신앙, 주민의 기억이 겹쳐 있다. 나무의 생태적 상태와 함께 주변 마을의 변화, 의례와 이야기, 주민의 이용 경험을 조사할 수 있다. 오래된 나무는 자연유산과 생활문화가 만나는 자원이다.

세어도와 사라진 섬의 흔적은 서곶의 해양성을 보여준다. 매립 이전의 해안선, 갯골, 나루, 염전과 어업의 기억은 현재 경관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옛 지도와 항공사진, 지명과 구술자료를 대조하면 변화 과정을 복원할 수 있다. 『인천 서구의 사라진섬 남은섬』은 이 분야의 기초자료이다.

5) 산업·노동과 도시생활 자원

가좌·석남 일대의 산업시설과 목재산업, 북항과 물류시설은 서해구의 도시 형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공장과 산업단지에는 생산기술, 기업의 성장과 이전, 노동자의 이주와 정착, 주변 주거지의 변화가 함께 담겨 있다.

문화원의 산업사 연구와 목재산업단지 구술채록은 이 분야의 기초를 마련했다. 작업 도구와 설비, 제품과 문서, 노동자의 기술과 경험도 조사 대상이다. 공장 이전과 폐쇄가 진행되는 현장은 기록의 시급성이 높다.

전통시장과 오래된 상가, 주거지, 가정오거리와 같은 교통·생활의 거점도 문화자원이다. 시장의 업종 변화와 상인의 생애, 주민의 소비와 이동을 조사하면 도시생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재개발 이전의 골목과 상점, 주택과 주민 관계를 담은 사진·구술자료는 변화 이후에도 지역을 이해할 근거로 남는다.

6) 문화시설과 주민 활동 공간

서해구문화회관, 엘림아트센터,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정서진 아트큐브 등은 공연과 전시의 공간이다. 박물관과 도서관, 청소년·노인 문화시설은 관람과 학습, 모임과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공원과 작은도서관, 독립서점과 공방, 민간 문화공간도 주민의 문화생활을 구성한다.

문화시설은 건물과 설비,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이용자와 동아리 활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같은 시설도 주민의 참여 방식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문화자원의 현황은 공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함께 조사해야 파악할 수 있다.

2. 서해구 문화자원의 특성과 연구과제

특성	현황에서 확인되는 근거
역사적 시대의 자원 적층	고려의 도자 생산, 조선의 인물·묘역·관방유적, 산업화와 신도시의 문화공간
해륙연계 문화	해안 방어시설, 섬과 나루, 매립지, 북항과 물류시설
장소와 이야기	용두산 설화, 지명고사, 오래된 나무와 당제, 인물 유허지
생활권별 자원 구성이 편차	오래된 마을, 가좌·석남 산업지역, 청라의 주거·문화공간
도시변화 자원 소실 위험 높음	매립, 산업시설 이전, 재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 급격한 변화

이러한 특성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산과 해안, 마을과 공장, 주민의 이동과 문화활동을 함께 살피면 개별 자원의 관계가 드러난다. 특히 해안선과 생업의 변화는 서해구의 해양성을 이해하는 핵심 주제이다.

현황을 분석할 때는 자료가 충분히 쌓인 분야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 유적의 소재와 연혁을 다룬 자료에 현재의 보존 상태를 보완하고, 마을지와 산업사에는 이후의 변화를 기록해야 한다. 시설 목록에는 실제 이용자의 생활권과 활동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 문화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접근성을 함께 살피면 조사와 지원의 공백을 확인할 수 있다.

3.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과 활용 조건

활용 가능성은 역사적 중요성, 자료의 축적 정도, 현장 접근성, 운영·전승 주체, 주민의 관심, 보존 여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다음 자원군은 연구와 교육·창작의 연계 가능성이 크지만 자원별 선행과제가 다르다.

자원군	활용 방향	선행과제
녹청자 도요지·박물관	역사·기술 교육, 전시, 도자 제작 체험	유적·유물·체험의 연계와 해설 점검
검여 유희강	작품 연구, 전시·강연·서예교육	작품·생애 자료 정리와 이용 협의
허암 정희량 유허지	문학 답사, 지역사 교육, 경관 읽기	시문과 지역 관련 자료 대조
오래된 나무·마을 당제	생태·인문교육, 의례 기록	보존 상태와 전승 여건 확인
세어도·옛 해안과 섬	지도·사진 전시, 해양생활사 답사	옛 지형과 생업 자료 조사
산업·시장·노동의 기억	구술채록, 생활사 전시와 출판	소실 전 기록과 공개·이용 협의
설화·지명과 관련 장소	인문산책, 지역교육, 창작 자료	전승 출처와 현장 확인

박물관과 공연장처럼 운영 기반을 갖춘 곳은 교육·전시와 연계하기 쉽다. 관방유적과 옛 해안은 위치와 지형을 확인하는 조사가 우선이다. 묘역과 자연유산, 마을 의례는 관리 주체와 주민의 동의, 보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생활사 자료는 소실되기 전에 수집하는 일이 시급하다.

제3장

서곶학의 갱신과 연구 활용 과제

제3장 서곶학의 갱신과 연구 활용 과제

1. 향토사 연구의 성과 계승과 연구 범위 확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지역학도 현재의 문제의식으로 지역의 과거를 묻고 해석하며 갱신해야 한다. 무엇을 조사하고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는 오늘의 주민들이 처한 상황과 관심에 따라 달라진다.

서곶학의 갱신은 향토사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연구 범위와 방법을 넓히는 데서 출발한다. 향토사 연구는 지명과 인물, 유적과 설화, 문헌과 구술자료를 발굴하여 지역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문화원이 축적한 마을지와 산업사, 생활사 기록은 후속 연구의 기초이다.

연구 과정에서는 지역을 오래된 동질적 공동체로 전제하거나 토박이와 명망가의 경험을 지역 전체의 역사로 일반화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이주민·노동자·여성·청년의 삶과 지역 내부의 갈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데 치우치면 역사적 사실과 권력관계를 검토하기 어렵다. 기존 자료의 출처와 맥락을 확인하고 문헌·지도·구술을 교차검증해야 한다.

연구 범위는 산업과 노동, 이주와 정착, 개발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과 역사적 생활권의 관계, 주변 지역과의 교류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문제와 연결하는 것이 서곶학 갱신의 중요한 방향이다.

2. 다양한 주민 경험과 시민의 삶

서곶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주하고 정착하며 일하고 생활해 온 공간이다. 세대와 성별, 직업과 출신지, 거주기간과 생활권에 따라 지역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나의 서곶다움으로 모든 주민의 경험을 묶기보다 이러한 차이와 이동, 갈등과 협력의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

무엇을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로 선정하고 누가 그 결정에 참여하는가도 연구의 문제이다. 특정 인물과 유산, 오래된 주민의 기억을 지역의 표준으로 삼으면 다른 경험이 누락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고 현재도 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서곶학의 갱신을 이끄는 기준은 시민의 삶이다. 개발과 산업 변화가 누구의 생활을 개선하고 누구에게 부담을 주었는지, 어떤 경험이 공식 기록에 남고 어떤 기억이 누락되었는지 물어야 한다. 시민의 존엄과 권리, 생활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역의 역사와 현실을 검토해야 한다. 서곶학은 시민이 자신의 생활조건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데 필요한 공공적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

3. 시민과 함께하는 조사와 해석

지역학은 현재의 문제의식으로 지역의 과거를 묻고 해석한다. 시민지역학은 시민의 삶과 질문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시민이 연구자 및 지역기관과 함께 의제 설정, 자료의 발굴·기록·검증·해석·활용에 참여하는 공공적 지역학이다. 참여 범위에는 오래 거주한 주민과 새로 정착한 주민, 지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 과거 주민과 통근자도 포함된다.

연구 의제는 시민과 함께 정해야 한다. 생활공간의 변화, 생업과 공동체의 문제, 지역에 대한 기억과 미래의 기대를 수집하고 연구 질문으로 구체화한다. 시민의 경험과 연구자의 전문지식을 결합하면 기존 기록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참여자의 세대·직업·출신지·생활권을 넓혀 특정 집단의 관심이 지역 전체의 의제로 일반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과 연구자는 문헌·지도·사진을 검토하고 현장을 관찰하며 구술을 수집하는 과정을 함께 수행한다. 가족사진과 일기, 상점 장부, 노동과 이주의 기록 등 생활자료도 조사 대상이다. 수집한 자료의 출처와 생산 배경을 확인하고 사실·기억·해석·가설을 구분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경험을 비교하고 해석의 근거를 토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시민의 참여 확대와 학문적 검증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성과는 시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고 교육과 창작, 지역의 의사결정에 연결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과 새로운 자료를 반영해 기존 성과를 수정·보완하는 절차도 갖추어야 한다. 질문 설정에서 조사·검증·해석·활용·재검토까지 시민이 참여하고 성과가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민지역학의 핵심이다.

과제	추진 내용
시민 질문 연구의제화	옛 바다의 위치, 공장 이전 이후의 변화 등 주민의 질문을 모아 공동연구과제로 정한다.
조사·집필 시민참여 확대	마을지 후속 조사에 주민·노동자·상인·청소년이 참여하고 이름과 기여를 명시한다. 마을연구자, 주제별 시민 연구 지원
현재의 삶과 연결한 해석	동제는 공동체의 변화, 산업사는 노동과 주거, 옛 해안은 도시환경의 문제와 연결해 토론한다.
세대 간 이해와 참여	청소년이 옛 사진의 장소를 찾고 주민의 생애를 인터뷰한다. 결과는 참여자가 선택한 매체로 제작한다.
지역의 결정에 연구 반영	조사성과를 보존·공공공간·도시재생·학교 교육에 제안하고 반영 여부와 결과를 공유한다.

4. 자료 정비와 기록의 우선순위

기존 발간물과 사진·구술·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당시 지명과 현재 행정구역, 출처와 조사 시점을 표시하고 지명·인물·장소별 통합목록과 색인을 마련한다. 문화원·도서관·박물관·연구기관에 분산된 자료의 소재를 함께 안내하면 시민이 자신의 동네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읽고 추가 정보를 제보하기 쉽다.

자료 비평은 정비의 기본 절차이다. 전승을 채록한 기록과 후대의 개작·윤문을 구분하고 판본 간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역사 기록과 구전의 내용이 다를 때는 차이를 밝히고 각각의 성격을 설명한다. 새로 생산한 기록에는 조사 경위와 이용 조건을 남겨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조사의 우선순위는 소실 위험과 기록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공장 이전과 재개발, 전승자의 고령화로 사라질 가능성이 큰 대상은 먼저 기록한다. 시설과 물품, 사진과 문서를 수집하고 주민·상인·노동자·전승자의 경험을 채록한다. 기록의 공개 범위와 이용 조건은 당사자와 협의한다.

서해구와 검단구의 자료는 공동으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서곶의 역사적 범위와 현재 사업 관할을 구분하고, 지역 간 이동과 교류를 연구하는 공동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5.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분담과 협력

서해구문화원은 조사·연구와 자료 보존, 시민교육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마을지와 산업사의 후속 조사를 추진하고 시민의 질문을 연구 의제로 연결한다. 자료 접근과 조사 교육, 공동연구와 토론을 지원하며 연구성과를 새 행정구역에 맞는 교육자료로 정비한다.

서해구문화재단은 분구 이후 지원사업과 시설·프로그램의 대상, 운영 책임을 점검해야 한다. 옛 서구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예술인과 단체, 주민 동아리는 지원 자격과 활동 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 진행 중인 사업의 처리 기준과 향후 공모 자격을 명확히 안내하고 검단 지역의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 공백을 줄여야 한다. 시설의 소재지와 실제 이용자의 생활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문화예술 지원은 생활권별 수요와 접근성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오래된 주거지와 산업지역, 청라·루원시티 등에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예술인의 활동 여건을 조사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공연·전시·축제·문화예술교육을 주민의 일상과 연결하고 지속적인 창작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두 기관은 연간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연구성과가 전시·공연·축제·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할 수 있다. 공동 기획에서는 자료의 근거와 해석을 검토하고 시민과 예술인의 새로운 표현을 지원한다. 박물관·도서관·학교·민간 문화공간도 자료 공유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협력 방향이다.

사업을 평가할 때는 행사 횟수와 방문객 수에 더해 자료가 얼마나 정리·공개되었는지, 교육과 창작에 다시 사용되는지, 주민이 지속해서 참여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기존 행사의 목적과 내용을 새 관할과 주민 구성에 맞춰 검토하고 그 성과를 다음 조사와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장

문화자원의 현재적 재해석 시론

제4장 문화자원의 현재적 재해석 시론

문화자원의 재해석은 자료의 출처와 현황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서해구청과 문화원, 문화재단 여러 가지 자원들을 조사한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중 학술적 관점에 보면 근거가 분명치 않거나 집필자의 주관적 개작, 윤문으로 변질된 자료도 적지 않다. 원본이 확보되어야 자원의 고유한 맥락을 밝히고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문제를 오늘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다. 사랑과 평화에 대한 염원, 노동의 고단함,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권력의 횡포에 대한 분노 등은 여러 세대가 함께 생각할 주제이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연구와 활용에 대한 시론이다.

1. 허암의 문학과 오늘의 경관 읽기

문화원은 허암예술제를 통해 시민의 창작 참여와 작품집 발간이라는 성과를 쌓았다. 정희량의 문학을 읽고 그가 살펴본 지역의 장소와 경관을 탐색하는 과정을 행사에 도입할 수 있다. 인물의 생애와 작품, 지역의 관계를 이해하는 활동이 창작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옛 시문에 나타난 경관을 오늘의 도시와 비교하고 시민이 새로운 경관을 발견하도록 한다면 허암의 문학을 현재의 삶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문학과 미술,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과거의 장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의 주민은 어떤 풍경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함께 살피는 것이다. 「부평8경」을 장소를 생각하면 오늘의 서해구에서 다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평사낙안(平沙落雁) 넓고 평평한 모래밭에 기러기 내려앉고
원포귀범(遠浦歸帆) 멀리 떠난 배가 포구로 돌아오네
어촌낙조(漁村落照) 어촌에 해는 떨어지고
산시청람(山市晴嵐) 들과 산에는 아지랑이 피어 오르네
동정추월(洞庭秋月) 마을과 들판에는 가을달이 밝고
용상모우(湧湘暮雨) 용상에 해가 저무는데 비가 내리네
연산모종(煙山暮鐘) 안개 낀 산에는 저녁 종소리 울리고
강촌모우(江村暮雨) 강촌에는 저녁비가 내리네

이러한 활동은 서해구 새팔경 찾기와 장소 가꾸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경관 선정은 주민이 이유와 경험을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생태·역사·생활의 가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문화원은 관련 시문의 원문과 번역, 장소 정보를 정리하여 시민의 관찰과 창작을 지원할 수 있다.

2. 심곡동 은행나무와 평화 도시

서해구 심곡동 은행나무는 인천시 인재개발원 구내에 있는 오래된 나무이다. 수령은 5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벌목으로 한쪽 줄기만 남았고 교육원 건립 당시 옮겨 심었는데도 살아남아 있다. 이 나무에는 평화로운 때에는 줄기의 구멍이 사람 하나 들어가지 못할 만큼 좁아지고 전쟁 때에는 지게를 진 사람이 드나들 만큼 넓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주민들은 나무의 변화에서 전쟁과 평화의 징후를 읽었다.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은행나무에는 황해도 연안군 호남리의 부부 은행나무 가운데 수나무가 큰 홍수에 뿌리째 떠내려와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암나무는 연안에 남았고 두 마을 주민들은 서로 연락하여 음력 정월 그믐에 각각 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분단 이후 교류와 공동 의례가 끊기면서 두 나무의 사연은 이산과 단절의 상징이 되었다. 볼음도 평화정원은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남북의 화해와 공존을 염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심곡동 은행나무가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면 볼음도 은행나무는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생각하게 한다. 두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에서 평화라는 보편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시민과 청소년이 이야기를 읽고 평화의 의미를 글과 그림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할 수 있다. 나무의 보전과 마을의 기억을 공유하는 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홍성담의 「은행나무 키스」는 이러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분단의 바다를 건너 만난 두 나무가 얼싸안고 입 맞추는 모습은 오래된 전승에 담긴 만남의 염원을 오늘의 예술로 표현한 사례이다.

3. 서곶과 검단의 봉수와 통신의 역사

서곶과 검단에는 축곶산·백석산의 봉수 기록과 경서동 범머리산의 봉수 전승이 남아 있다. 봉수는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위급한 소식을 전달하던 비상통신 수단이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부평도호부조는 축곶 봉수가 남쪽 인천 성산과 북쪽 김포 백석산에 응했다고 기록한다. 김포현조에는 백석산 봉수가 북쪽 통진 약산과 남쪽 부평 축곶에 응했다고 나온다.

봉수의 입지는 산의 높이와 함께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 통신망 안에서의 역할로 이해해야 한다. 옛 해안선과 지형, 봉수 사이의 시야를 검토하면 해안 통신망의 운영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범머리산의 봉수·망루는 병인양요 이후 이양선의 출몰을 관측했다는 구술이 전하므로 문헌과 지도,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시기와 기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축곶산은 주민이 찾는 역사 산책 공간으로 가꾸고 백석산과 범머리산의 관련 장소를 함께 살피는 서곶·검단 봉수길을 구상할 수 있다. 축곶산은 유구 조사와 보존·정비를 우선하고 복원 범

위는 확인된 근거에 따라 정해야 한다. 백석산과 범머리산의 옛 위치와 지형도 조사해 안내지도와 해설에 반영한다.

봉수와 현대 통신을 비교하는 교육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기술과 운영 체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옛 해안선과 봉수 간 시야를 현재 경관에 겹쳐 보여주고 신호 전달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 오늘의 재난경보·해안 관측과 비교하는 교육도 가능하다. 문화원은 검단 지역의 관계 기관·주민과 공동으로 자료와 구술을 수집하고 조사 결과를 답사·전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4. 검여의 예술정신과 그 계승

2026년 인천서해구문화재단은 검여 유희강 서거 50주기를 맞아 특별전과 추모 휘호대회, 학술심포지엄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기념사업은 지속돼야 한다. 생애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자료와 해석, 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서해구문화원은 검여 연구와 자료 정리, 시민교육과 지역 서예문화 조사를 꾸준히 수행하고 그 성과를 전시와 축제에 제공할 수 있다.

검여의 좌수서는 부드러움과 굳셈, 원숙미와 고졸미를 함께 보여주는 글씨체로 평가된다. 그는 왼손으로 새로운 작품세계를 펼쳤다. 임창순은 좌수서에서 우수서 시기에 간혹 드러났던 객기가 사라지고 순수하고 고졸한 품격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날카로움과 기교의 과시가 줄어들면서 담박한 품격이 생겨났다는 뜻이다.

검여는 좌수서에 이르러 칼처럼 날카로운 검여(劍如), 돌처럼 단단한 석여(石如), 박처럼 둥근 표여(瓢如)가 어우러진 삼여(三如)의 경지를 성취했다. 삼여미학은 서로 다른 조형적 성격이 그의 글씨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경지를 설명한다. 우수서에서 좌수서로 이어지는 변화를 함께 살펴야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원은 생애와 작품, 서예정신을 조사·정리하고 관련 문헌과 작품정보, 유족과 제자의 증언을 수집해야 한다. 우수서와 좌수서의 작품을 비교하고 삼여미학을 구체적인 필획과 구성에서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성과는 시민이 읽을 수 있는 해설과 교육자료로 제작하고 전시 주제와 강연, 작품 해설에 활용한다.

시민교육은 연중 지속할 수 있다. 검여의 생애와 작품을 배우는 인문강좌, 삼여미학을 살피는 작품감상, 글의 뜻을 이해하며 쓰는 서예교육을 결합한다. 온몸의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수련과 창작의 과정을 중시하고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과 글씨로 표현하도록 한다. 시민의 작품과 창작과정을 발표하는 자리를 축제와 연결할 수 있다.

문화원의 사업	주요 내용	전시·축제와의 연결
연구와 자료 정리	생애·작품·좌수서·삼여미학 조사, 구술 수집	전시·강연·해설의 근거 제공
예술정신 시민교육	생애 강좌와 작품감상·토론	작품을 이해하는 시민 참여 확대
연중 서예·창작교육	기초 수련, 문학 읽기, 자기 글과 글씨 창작	시민 작품과 창작과정 발표
지역 서예문화 조사	서예모임·교육공간·생활 속 글씨 조사	서예인과 시민모임의 교류
공동 기획과 기록	연구·교육 성과 공유, 행사 기록과 의견 수집	다음 기획의 주제와 내용 보완

문화원의 연구와 교육 성과를 문화재단의 기획에 반영하고 행사에서 제기된 질문과 시민의 관심을 다음 연구·교육으로 이어갈 수 있다. 검여의 예술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과 자료가 지역에서 지속해서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청라하늘대교와 해양도시 서해구

청라하늘대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4.68㎞, 왕복 6차로의 해상교량으로 2026년 1월 5일 개통했다. 전망과 보행·체험을 통해 바다와 국제도시를 다양한 높이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다. 교량의 경관과 함께 주변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교량에서 보이는 도시와 바다에는 옛 섬과 갯벌, 간척과 매립, 생업과 이동의 역사가 담겨 있다. 현재의 지형에 옛 지도와 사진을 겹쳐 보여주고 주민의 구술을 소개하면 방문자는 오늘의 경관과 그 변화 과정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교량의 건설 과정과 기술, 청라와 영종의 교류도 해설 주제가 된다.

문화원이 축적한 섬·해안·마을·산업 자료를 관련 전시와 경관 해설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의 출처와 조사 시점을 확인하고 전망시설의 운영 주체와 협의해 해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새로 조사한 주민의 경험도 함께 담아 현재 경관에 대한 여러 시선을 보여줄 수 있다.

청라하늘대교를 시민의 산책·교육·창작·문화활동이 이어지는 장소로 가꾸려면 접근 여건과 이용자 경험을 살펴야 한다. 허암 문학의 경관 읽기와 연계해 교량과 도시,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시민이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다. 경관을 즐기는 경험과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활동을 함께 마련하는 방향이다.

2026년 제3회 인천 서곶학 세미나

서해구의 문화자원과 콘텐츠의 가능성

아카데미 지역자원으로 읽는 서해구

발 행 일 2026년 10월 21일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서해구문화원

기획총괄 서덕현(인천서해구문화원 사무국장)

기획운영 이다영(인천서해구문화원 지역문화팀 대리)

인 쇄 손빛디자인